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늘 함께 하는 나무가 있는가

소소한 주말 아침, 시원스레 열어젖힌 커튼 사이로 제법 햇살이 따사롭다. 커피 한 잔을 들고 몇 개 남지 않은 앙상한 감나무와 까치 부부를 바라본다. 거실 의자에 앉으면, 금방이라도 졸음이 물려올 것만 같다.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 무관심했던 것들과 눈을 맞춘다.

“어머, 여기, 여기, 고놈 참 신기하네, 어제까지도 다 죽어가더니만.....”

“아디, 어디, 무슨 나무에.....”
“보라색 꽃이 피었네.”

“나도 진작 봤어, 그런데, 나무가 죽어가는구나” 생각했지, 꽃이 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네? 보라색이라 참 예쁘네.”

“아디, 다른 나무도 꽃이 피려냐?”
“지금 우리 꽃을 사랑하고 있는 거 맞지?”

“그래,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인데.....”

“.....”
“아, 생각났어, 이경림 시인의 ‘자작나무야’, 그래 그 시 첫 행이었어”

창밖을 보며 깊어가는 가을이 아쉽기만 하다. 인방 베란다에 있는 큰 화분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화분에 ‘자작나무를 한 그루 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했다. 너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로 시작해서 ‘너 많이 아프구나’로 마무리되는 이경림 시인의 ‘자작나무야’가 기억의 저편에서 푹, 내게로 달려왔다.

너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쪽쪽 살 빠지는 소리 들으며 진땀나게 그리워하고 있구나 이 엄동에 청청하게 고통 거느리고 지지 푸르게 신음하

고 있구나 가지에 새 한 마리 앉아도 소스라치는구나 그래 그 마음만 저지는구나 이파리만 날카로워지는 날들 진비림에도 하늘이 흔들리는 날들 지구 끝집만 키우며 거머쥘 듯 검버섯 만드는 날들 그래 아픈 물에도 꺼칠하게 열매 달리고 그 열매 덩치게 가지 끝에 붙어있구나 아아 하늘은 자꾸 네 모기지를 당기고 출출 물소리 뿌리를 흔드는데 안절부절 그 사이에서 팔다리만 휘젓는 자작나무야 너 많이 아프구나?

-이경림, 자작나무야 전문-

시인은 자작나무와 마주하며, 나와 늘 함께 하는 나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시’라는 형식에 구속되지 않고 편한 마음의 소리를 언어로 토해내고 정한다. 없는 가정에 태어나 ‘가난’이란 것을 몸소 체험한 시인은 없는 남편을 만나 평생 희망을 붙잡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시인은 ‘없는 것’, ‘남편’, ‘자식’, ‘행복’, ‘희망’ 이 모든 것들이 나무일 수 있다는 생각에 꼭집점이 찍힌다.

이경림 시인은 ‘문학과 비평’, 불호(1989)에 ‘물욕의 땅에서’ 외 9편이 김춘수 시인의 심사로 당선으로 등단하였다. 시집으로는 ‘토씨 찾기’, ‘그곳에도 사거리는 있다’, ‘시절 하나 온다 잡아먹자’, ‘장자들’ 등

박 여 범

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이 있다.
내에게도 ‘늘 함께 하는 나무(내 나무)’가 있다. ‘가족공동체’, ‘직장’, ‘지역사회’, ‘국가’ 등 ‘나무’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다. 그렇다 면 그 ‘나무’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며, 무슨 역할을 해 낼 수 있을까? 생각하기 나름이다. 소소한 일상에 서 네모난 화분에 늘 함께 할 수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심어보는 것이 그 출발점이 아닐까? ‘고운 햇살과 맑은 공기’, 그리고 ‘적당한 수분’이라는 친구들과 ‘정성’이라는 양념을 더해 시작해보자.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

따사로운 햇살 가득한 날 하늘을 나는 늘 함께 하는 나무가 있어 네모난 보라색 엷은 집에 가던 길을 멈추고 두 팔 벌려 울려다 본 미세먼지 뿌우연 흰 구름 어깨동무 무대 뒤로 피란 하늘 환하게 비춰주고 간만에 산마루 느티나무 극장은 자작지작 마디마디 달콤하게 농익은 포도주 한 잔되어 숨죽여 버리며 토닥토닥 살포시 안아 주던 그가 속삭인다너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줄쫓다 정말 좋겠다 내 나무와 오늘도 난 하늘을 난다

-박여범 '늘 함께하는 나무(내 나무)가 있는가' 전문-

‘늘 함께 하는 나무’(내 나무)가 있다. 그 나무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다. 그래서 늘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 그렇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마음이 앞설 때도 종종 있다. ‘내 나무’와 지금도 맑은 공기와 햇살, 수분을 섭취하며 같은 곳을 바라보며 손 맞잡고 걸어가고 있다. 미래도 그럴 것이고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베란다를 확장하여 만든 작은 우리 가족의 화원을 눈에 담아본다. 기대하지도,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불현 듯 고개를 내미는 그들이 있다. 덕분에 반가움으로, 고마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하다. 많은 시간, 연약한 나와 가족을 지켜봐 준 ‘늘 함께하는 소중한 나무’(내 나무)다.

가로수 길을 걸어보자. 나무가 많지 않아도 좋다. 집 앞 작은 골목길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더라도, 그에게 다가가 살포시 안아 주며 토닥 토닥 등을 두드려 주자. 집을 나서기가 싫다면, 어디에서든 좋다. 나무나 화초가 있으면 된다. 가까이 다가가서 천천히 그를 바라보자. 분명 ‘마음의 소리’가 전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 나무’다. 귀를 기울여보자, 늘 함께 있어야 할 소리가 들릴 것이다.

너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지, 좋겠다. 정말, 좋겠다.

그가 속삭인다. 이 속삭임에 대한 모범답안은 중요하지 않다. 생각나는 대로,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에서 전해주는 소리를 글로 옮겨 보자.

새로운 ‘늘 함께하는 나무, 내 나무’를 만났으면 좋겠다. 독자의 몫으로 남겨둔다.

사설

탄소산업 일자리 많이 창출해야

전북의 탄소산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다. 제34회 섬유의 날을 맞아 크린앤 사이언스 산업포장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탄소산업융합기술원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그래서 또 다시 전북도와 전주시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 도내 젊은이들에게 눈길을 주어야한다는 게 그것이다.

지역발전의 쌍두마차가 되어 희망을 보여주라는 당부이다. 젊은이들 대다수가 전북 지역에 아무 미련이 없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취업률이 전국 꼴찌 수준인 까닭이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북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 젊은이들의 심정을 여지사지해야 한다.

자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좀 달라졌지만 이같은 상황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리는 없다.

전북 탈출 정서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을 붙잡아야 한다. 그러므

로 전북도와 전주시는 분발해야 한다.일자리 늘리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만 한다.

지역 경제가 늘 빨간불이라서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므로 이제 구태의연한 대책으로는 안된다. 그 약발을 기대할 수가 없는 까닭이다.

미취업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끄러운 기록을 과연 언제나 떨쳐버릴 것인가. 전북도와 전주시는 탄소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전주시는 예전에 노사발전재단과 전북대학교와 머리를 맞대고 취업률이 전국 꼴찌 수준인 까닭이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북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 젊은이들의 심정을 여지사지해야 한다.

이제 반드시 그 성과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거듭 당부하거니와 탄소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어야겠다.

한시적인 자살한 일자리는 고맙지 않다

일자리 대책이 달라져야겠다. 한시적으로 내놓는 자살한 일자리는 고맙지가 않다.

전북도가 잘 알고 있을 테지만 일자리 창출이바로 인구 감소를 막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여전히 어두운 것 투성이다.

한 때 일자리가 늘고 취업률이 상승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전국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계속 노력해야겠다. 일자리 성과가 괜찮지만 그것은 공감대하고는 거리가 먼 보고이다.

정말이지 도내 고용동향을 보면 여전히 답답할 뿐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먼저 모범적으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전북 지역의 청년 고용 열기가 아직도 미지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감각이 둔한 탓이다. 도내 취업률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어떻게 끌어 올려 보려는 움직임이 둔하다.

오래전부터 수차례 언급하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했거니와 전북도

는 도내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의 질이 예전보다 못했더라도 채용은 일자리가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은 허튼 것이 아니다. 전북도는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청년 실업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북도가 파악한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때때마다 이만하면 대견하지 않는 나는 식으로 발표한 내용에 청년들이 공감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이다.

일자리 창출은 계속 추구돼 마땅하다. 관청은 일자리가 부족하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전북도가 목도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는 저출산과 함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은 전북도가 발 벗고 나서 마땅하다. 물론 공공기업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전북도는 우리 지역의 현실과 관련해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갈수록 뒤처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북도는 보다 일한 일자리를 창출 해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고문

온라인투표와 K-방역

코로나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갑갑함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막심하다.

선관위는 코로나 확산 외중에도 만전의 주의를 기울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투표소감염사례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여 마친 후 세계 각국의 선거기관과 웹세미나 등을 통해 경험을 공유해 주고 있다.

선관위는 이전부터 공직선거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사회단체 선거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잘 알

려진 방법은 기표대를 대여하여 단체가 자율적으로 종이투표로써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사회단체의 대면모임을 꺼리는 분위기에 따라 온라인 투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www.kvoting.go.kr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용을 승인한 단체의 선거에 대하여 PC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웹, 모바일 환경에서 투표관리등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김 형 준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 주무관

다. 기존 방식의 선거관리자의 입장에서 기존 방식의 선거관리자의 입장에서

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관리인력을 상주시키고 투표용지 인쇄 관리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유권자들이 참여하여 투표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하는데, 온라인투표는 그와 같은 관리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 선거관리업무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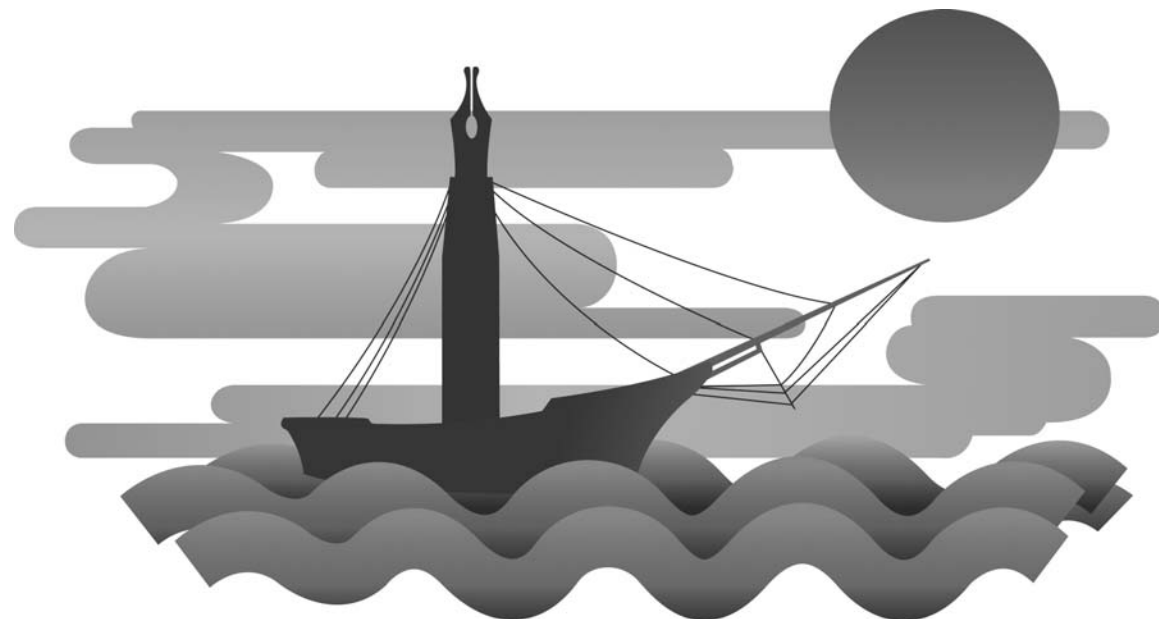
생활친화형 디지털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정확하게 투표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편리가 보장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온라인투표 K-voting이 사회 각계로부터 애용되어 생활민주주의와 K-방역 모두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